

Matthew Arnold의 비평론

—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 을 중심으로

김 선 희*

目 次

- | |
|----------------------|
| I. 서 론 |
| II. Arnold의 비평의 발전과정 |
| III. 비평과 창조적 활동 |
| IV. 비평의 과정 |
| V. 결 론 |

I. 서 론

오늘날 비평계의 동향을 보면, 비평의 대상이 비평 그 자체로서 의의를 지니는 경향을 띤다. 즉 비평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실질적인 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담론의 한 형식으로서 자기 정당화와 영속화에 급급해 왔다. 이처럼 비평은 그 자체가 이론화되는 한편, 보편성과 전문성 사이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해 있다. 이에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비평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¹⁾ 비평 이론이 침해해지고 그에 대한 대립과 긴장이 더해감에 따라, 오히려 비평의 전통적인 기능에 관한 성찰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²⁾

이처럼 전통적 비평의 기능이 오늘날 일부 비평가들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질 때 부각되는 비평가가 Matthew Arnold이다. 그는 현대의 다양한 유형의 비평이나 이론과는 달리, 이론을 근거로 한 비평을 불신하였던 점에서 두드러진다. 즉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문학과 비평의 잠재력을 확신한 비평가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전혀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날 세분화되고 이론화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참고 : Paul Hernadi, *What is Criticism?* (Bloomington : Indiana UP, 1981).

2) 비평의 전통적 기능을 옹호하는 비평가들로는 M. H. Abrams, Wayne Booth, Gerald Graff, Murray Krieger, Mary Pratt 등이 있다.

되는 비평 이론 시대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전적인 비평을 제시했다. 즉 "A French Critic on Goethe"에서 비평에 있어서의 판단의 중요성을 설파했으며³⁾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문학의 내용과 문체뿐만 아니라 문학은 독자에게 무한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보이는 비평론 속에 함축시키고 있다(Doodley 117).

비평가는 무엇보다도 당대의 추세를 잘 관철해야 하며 잘못된 발전에 대하여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듯이, 결국 문학비평은 문학과 독자의 이해관계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정보, 분석 또는 가치판단이므로 비평가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널리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비평가의 입장 표시는 시대적인 당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더욱이 Arnold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지적 풍토는 이데올로기적인 혼돈과 불안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비평가는 대중들을 가르치고 통합하며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 주 임무였었다. 이에 Arnold는 인간의 활동 그 자체에서 창조적 가치를 발견하는 비평 활동, 즉 인간의 발전은 지적인 삶과 정신적인 활동에 있음을 인식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평, 사람들을 위로하고 활기있게 하여 고동치는 맥박을 느끼게 하는 비평, 그리고 비평가가 지식과 판단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된 최상의 것" (CPW 3 : 283)을 널리 알려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비평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문학적 지성과 정신의 질의 중요성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Willey 252), 민주화라는 현대 사회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지성이 결여된, 무질서하고 혼란해진 사회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제기했다. 따라서 그의 비평적 노력은 현대라는 황야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의 비평론은 비평가의 전통적 역할과 바람직스러운 비평의 개념 정립이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을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 평론은 Arnold의 초기 평론, "The 1853 Preface"와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에 나타나는 시인의 임무와 비평적 사상이 비평가의 기능으로 발전된 것이기에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더욱이 그는 공평무사한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고 비평의 이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비평의 기능, 대상, 방법 등을 피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rnold의 비평론의 발전 과정과 비평의 개념을 살펴보고 비평과 창조적 활동의 관계 그리고 비평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다음, Arnold의 비평론의 현대적 의미를 고구해 보고자 한다.

3) Arnold는 "A French Critic on Goethe"에서 판단의 잘못에는 "무지의 판단, 서로 어울리지 않는 판단, 선망과 질투의 판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판단이 있는데, 이 판단이 가장 쓸모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가는 비평의 대상을 보지 않고, 그 대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다른 것을 본다... 이런 비평가는 참된 비평가가 아니라 체계적인 사람, 주창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Matthew Arnold, *The Complete Works of Matthew Arnold*, Vol. VII, R. H. Super, ed.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2), pp.254~55.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CPW, p.-)순서로 텍스트내에 표시함.

II. Arnold의 비평의 발전과정

전반적으로 비평가의 활동에 관한 Arnold의 확신은 1853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The 1853 Preface"에서 Arnold는 시인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행위를 선택해야 하며 독자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대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On the Modern Element in Literature" (1857)에서는 시인은 역사가처럼 시대를 해석하는 통찰력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널리 유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Arnold는 무엇보다도 판단력을 중시했는데, 시대의 특징으로 비평적 정신을 고취하고 공정한 비평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비평가의 지적 성숙을 "비평 정신으로 사실을 관찰하는 경향" (the tendency to observe facts with a critical spirit) (CPW, I: 24)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인은 지적 성숙, 비평 정신, 사실에 대한 관찰력으로 현대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석하여 마음의 평정을 주는 지적 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Arnold는 주장했는데, 이와 같은 비평 사상은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으로 이어져 비평의 기능과 비평가의 임무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Arnold는 *On Translating Homer* (1861)에서 비평의 탐구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여러 해 동안의 주된 노력은 비평적 노력, 즉 신학, 철학, 역사, 예술 그리고 과학이라는 지식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 (the main effort, for now many years, has been a critical effort: the endeavour, in all branches of knowledge, -theology, philosophy, history, art, science, -to see the object as in itself it really is) (CPW, I: 140)이라고 정의하고 비평의 적용이 문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1864)에서는 비평가의 기능으로 판단을 강조하면서 비평적 노력은 문학을 포함한 지식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지식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래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은 1862년 Bishop Colenso의 *The Pentateuch and Book of Joshua Critically Examined*를 시발점으로 하여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⁴⁾, Arnold가 자신의 비평의 개념을 명확히 세상에 알리게 된 평론으로 유명하다. 당시 Arnold는 문학 비평은 모든 책을 비평하는 것이므로 Colenso의 책을 신학적으로가 아닌 "보편적 문화" (general culture)에 미친 영향면에서 판단하여 비평했는데, 이후 비평의 기능이라는 문제가 논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2년후 그는 보다 명확한 비평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⁵⁾

4) 1862년 Bishop Colenso of Natal이 성서의 귀절의 타당성을 물으면서 Pentateuch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발표했을 때 당시 교회를 뒤흔드는 논쟁의 여세를 물고 왔다.

5) 참고: Sidney Coulling, "The Background of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Philological Quarterly* 42 (January 1963), pp. 36~54.

이에 “판단하는 비평가”⁶⁾에 관한 Arnold의 견해는 1862년 이후의 평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Maurice de Guerin” (1862)에서 Sainte-Beuve를 “유능한 법관”(so competent a judge) (CPW, 3: 18)으로, “The Bishop and the Philosopher” (1862)에서는 문학 비평의 중요한 기능을 “대체로 한 국가나 세상의 보편적 문화에 미치는 바에 따른 영향에 관하여 책을 심판한다.”(…try books as to the influence which they are calculated to have upon the general culture of single nations or of the world at large.) (CPW, 3: 41)라는 의미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비평 문학은 “책을 판단하는 것”(judge books) (CPW, 3: 76), 그리고 “문학 비평의 심판”(the tribunal of literary criticism), 또는 “비평의 심사”(the jurisdiction of criticism) (CPW, 3: 54)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Arnold가 강조하는 비평의 의미는 최고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Collini의 지적처럼, 보편적 판단력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Collini 55).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은 문학에 관한 비평으로 시작하여 끝을 맺고 있지만, 영국의 빅토리아인들에게 현대 사회에서의 비평 정신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면서 비평의 방법을 제시한 평론이다. 이 평론은 *Essays in Criticism, First Series* (1865)의 골격을 이루면서 영어로 된 산문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로서 Arnold의 비평 사상을 가장 적절하고 창조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Buckler 59). 또한 이 평론은 Arnold가 Homer에 관한 평론에서 주장했던 비평 정신 즉, 유럽의 비평 정신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결여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의 비평의 중심 사상과 비평가의 기능을 개진하고 있어 중요성을 띠고 있다.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은 Arnold가 그 때까지의 자신의 비평을 설명하고 당시 문학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논쟁에 새로이 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Schneider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에 있어서의”라고 제목에 조건을 붙이고 있듯이, 빅토리아 시대의 시의 경향, 다시 말하면 시인의 열정, 상상력, 시적 기질 그리고 낭만주의 재현이 문체가 된다는 취지로 Arnold가 이 평론을 썼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Arnold는 ‘시가 비평보다 우월하다’는 Wordsworth의 주장과 ‘상상력이 낭만주의 시대를 주도했다’는 Shairp의 주장에 대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낭만주의 시인들을 평가했던 과거의 자신의 비평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chneider 5).

그러나 낭만주의 시인들의 결점을 밝히는 것이 Arnold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가치 있는 사상을 발견하고 과거의 훌륭한 점을 보존시키는 비평의 실질적인 힘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비평을 활동하는 것으로, 즉 그 자체를 가치있는 하나의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대 정신에 부응한 광의의 비평 활동이 인간의 사상과 삶을 검토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고 했다(Schneider 103).

사실 Arnold는 문학과 비평의 실천적인 기능에 관심이 깊었다. 그는 당시 결점 중의 하나가 바로 현대성(modernity)의 결여, 즉 빅토리아 시대가 민주주의라는 현대를 맞이하려고 최선을 다하

6) 비평가의 원래 의미는 판단을 뜻하는데, I. A. Richards는 “To set up as a critic is to set up as a judge of values.”라고 했다: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RKP, 1976), p. 46.

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날 모두가 민주주의의 성장을 믿고 토론하면서도 적당한 시기에 이 민주주의를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는다.”(At present time, almost every one believes in the growth of democracy, almost every one talks of it, ...but the last thing people can be brought to do is to make timely preparation for it.) (CPW, 2:219) 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정신을 중시했다. 이는 무지한 중산층을 위해 특별한 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현대라는 시대를 맞도록 준비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 정신”은 Arnold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다. 현대 정신이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사상에 안주하지 말고 지식의 모든 분야에 관한 자유로운 의문, 즉 비평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는 “현대 정신”의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이것을 인간의 활동으로 대체시켰을 뿐이다. 즉 그는 현대 정신을 새로운 사상으로 수립하는 비평적인 힘으로 바꾸어 설명하면서(Coulling b 49) 현대라는 새로운 물결이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Arnold의 관심사는, Holloway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정신과 같은 정신 상태와 태도가 인간 사회에 바람직한 것이며 또 어떤 정신적 기질이 지식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의문을 갖게 하는가’라는 것이었다(Holloway 215).

따라서 Arnold는 빅토리아인들의 정신을 비평 정신으로 인생의 전분야에 걸쳐서 각성시키려고 노력했다. 비평가로서의 그의 과제는 최상의 것이 빅토리아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인간의 권리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영국의 빅토리아 사회의 도덕적, 지적, 사회적 저속성을 우려하여” 이미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겨냥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된 최상의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비평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듯이, 문학이야말로 세상을 문명화하고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대행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Arnold의 비평의 정의는 교육적 목표를 띠고 있으며 “최상”이라는 표현 또한 심미적 도덕적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Neiman 95). 이에 그는 이미 Homer를 논하는 평론에서 “최상”의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비평이라고 설명했으며 “현대”(modern)를 논하는 평론에서도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은 현대(contemporary)가 아니고 “최상”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Arnold의 비평의 요지는 시대 정신의 흐름에 따라 현대를 대표하는 비평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그는 현대에 있어서의 비평적 지성(critical intelligence)은 역사의 힘을 바르게 파악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보다 나은 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Dale 43), “유럽의 주된 노력은 일종의 비평적 노력, 즉 지식의 모든 분야, 신학, 철학, 역사, 예술, 과학에 걸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CPW, 3:258)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분야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 사회에 비평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사회의 문학, 예컨대 시는 빈약하고 무미건조해지고 단명하게 되므로, 비평가는 우선 전체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자신이 속한 시대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시대가 목표로 하는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비평가의

7) 참고: Matthew Arnold, *Letters of Matthew Arnold 1848~1888*, George W. E. Russell, ed., 2 Vols, Vol. I, p. 4.

의무이며, 그러기 위해서 비평가는 지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진리를 전파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Arnold는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 정신이 없을 때 그 시대의 창조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창조 정신보다 비평 정신을 더 강조하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지적, 도덕적 구원은 비평가와 사상가에게 달려 있다고 Arnold는 역설한 것이다.

Ⅲ. 비평과 창조적 활동

Arnold는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의 처음 부분에서만 창조 문학과 비평 문학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낭만주의 시인들이 주장하는 창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시가 문학 비평보다 가치있다고 한 Wordsworth의 주장에 답하는 것으로 비평의 기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Arnold는 당시 Shairp가 비평과 창조를 분리하고 시적 창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표한 평론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래서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에서의 Arnold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들과는 달리 비평을 옹호하고 비평도 창조 활동 못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려던 것이었다(Schneider 112).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은 Arnold가 비평이 창조적 활동임을 강조한 내용으로 돼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비평의 근본적인 활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 제기되는데, 이 비평의 기능에 대해 그는 "function", "effort", "endeavour"라는 표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는 이 비평의 "기능"을 "비평적 노력" (a critical effort)이라고 지적하고 이 노력은 창조에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모든 분야에서 즉, 신학, 철학, 역사, 예술, 과학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 (the endeavour, in all branches of knowledge, theology, philosophy, history, art, science, to see the object as in itself it really is) (CPW, 3: 25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Arnold는 이미 "The 1853 Preface"에서 창조력의 기본은 인간의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듯이 창조 활동이야말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하고 있다.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데 발휘되는 창조성은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나 항상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창작을 위한 여건이 바로 비평적 활동의 시대인데, Arnold는 이 비평적 활동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⁸⁾ 행복은 그가 평생 언급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⁹⁾, 인간 행위의 체계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을 때는 활동에 따르는 부수물일 수

8) Arnold가 강조하는 행복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Aristotle의 *Ethics*에 제시된 idea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Arnold는 이것을 비평에 적용시켜 활동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참고: Mary W. Schneider, *Poetry in the Age of Democrac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p. 104.

9) Arnold는 "Joubert" (CPW, 3: 208)에서 "...because he was full of light, he was also full of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Arnold의 시의 개념은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가 이처럼 행복을 증시하는 이유는 행복이야말로 빅토리아조 영국의 도덕적 정신적 위기에 대한 비평적 해결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Arnold는 행복과 지식의 연관성을 인식하게 된다. 즉 행복은 지식으로 제공되는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의 방식이며 지식은 시대의 요구에 수반되는 인간 활동의 기본으로서 종합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 행복을 성취하는데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Arnold가 주장하는 행복은 활동 그 자체에서 맛보는 행복감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 생활의 목표는 행복이며 행복은 활동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Aristotle처럼 인간의 최고 활동은 사유하는 이론적 활동에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최상”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Arnold의 비평의 초점은 활동에, 다시 말하면 비평가가 창조적인 비평 활동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에,¹⁰⁾ 그는 사회에 미치는 비평의 영향을 고려하여 비평의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고 비평을 “세상에 알려지고 말해진 최상의 것을 배우고 널리 알리려고 하는 공평무사한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시인 또는 비평가는 시대 정신의 주요 흐름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그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Arnold는 말한다. 모든 인간의 행복은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활동은 예술 작품의 창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Arnold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The critical power is of lower rank than the creative. True:… the exercise of a creative power, that a free creative activity, is the highest function of man: it is proved to be so by man's finding in it his happiness. But men may have the sense of exercising this free creative activity in other ways than in producing great works of literature or art…(CPW, 3: 260)

위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Arnold는 창조력은 행복을 유도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창조력의 행사, 즉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이 인간의 최고의 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창조적 활동에서 발견하는 데서 입증된다.”(CPW, 3: 260)라고 지적하면서, Schneider의 지적처럼, 창조력이 행사하는 바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후, 인간은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점을 파악하고 비평을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Schneider 113). 그래서 Arnold는 이 평론의 끝부분에

happiness.” 그리고 1887년 “From Easter to August”(CPW, 11: 264)에서 “To be quiet, reasonable person always answers, always makes for happiness.”라고 했다.

- 10) Arnold는 비평은 문화, 교육의 기능을 지니면서 개인과 사회 생활의 성격과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윤리적, 창조적 힘이라고 보았다. 이런 확신은 Carlyle, Ruskin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점이며 문학이 종교적 사상을 표현한다는 기독교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Goodheart 73).

서 비평과 창조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창조적 활동은 대단한 행복이며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창조적 활동이 비평에 속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창조적 활동감은 순수한 창작에 속한다." (...creative activity is the great happiness and the great proof of being alive, and it is not denied to criticism to have it;... (but) in full measure, the sense of creative activity belongs only to genuine creation.) (CPW, 3:285) 라고 비평도 창조적 활동임을 명시했다. 즉 그는 넓은 의미로 창조적 활동은 진정한 창작에 속하는 것이라고 처음 부분을 반복하면서도 비평과 창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실 Arnold는 시와 비평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주장을 Joubert에 관한 평론(1862)에서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문학의 천재들, 호머, 단테,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당대 칭찬이 자자했던 문학인들의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인생의 비평" (CPW, 3:209) 이라고 했다. Shakespeare의 중요성은 인생에 관한 풍부한 평가 그리고 그 가능성을 극으로 보여준 데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는 인생 비평이라고 한 Arnold의 주장은 비평적이며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Robertson 66).

이런 맥락에서도 비평가 Joubert는 Homer나 Shakespeare와 같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대한 창조 문학도 비평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rnold가 "비평가는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을 행사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즉 선행을 하면서, 배우면서, 심지어는 비평에서 느낄 수 있다." (...men may have the sense of exercising this free creative activity in other ways than in producing great works of literature or art... They may have it in well-doing, they may have it in learning, they may have it even in criticising.) (CPW, 3:260) 라고 주장하듯이, 비평 문학도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평가도 활동적인 면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사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비평도 사상을 발견하여 창조적 활동을 하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Arnold에 의하면 창조적 예술가는 인생 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비평가 또한 인생의 비평가나 다름없다. 실제 Joubert를 포함한 비평가들이 시인들처럼 인생을 직접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Arnold가 Sophocles에 관한 시를 썼듯이 어떤 시들은 문학 비평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창조 문학은 비평 활동 다음에 가능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창조적 활동의 시기보다 선행되는 것이 비평의 시대이다." (...a time of true creative activity... must inevitably be preceded...by a time of criticism.) (CPW, 3:269) 따라서 비평 문학의 세계는 최상의 완전에 근접하려는 일차적 비평의 창조적 활동이라면, 창조 문학은 이차적 비평의 창조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gene de Guerin의 산문을 시적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는 인생의 비평이라고 정의한 Arnold의 비평 태도는 창조와 비평 문학은 "근본적으로 인생 비평"이기 때문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rnold는 비평의 목적을 "진실하고 신선한 사상의 흐

를 창조하는 것”(...to create a current of true and fresh ideas) (CPW, 3:270)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비평은 끝이 없는 활동이지만, 비평이 시를 위해서 존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IV. 비평의 과정

Arnold는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에서 비평은 판단을 내리는 한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러 활동임을 지적하면서 비평의 과정은 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듣고 정리하듯이, 비평가가 지식을 지니고 난 다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Judging is often spoken of as the critic's one business, and so in some sense it is: but the judgement which almost insensibly forms itself in a fair and clear mind, along with fresh knowledge, is the valuable one: and thus knowledge, and ever fresh knowledge, must be the critic's great concern for itself. And it is by communicating fresh knowledge, and letting his own judgement pass along with it, -but insensibly, and in the second place, not the first, as a sort of companion and clue, not as an abstract lawgiver, and that the critic will generally do most good to his readers. (CPW, 3:283)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대목은 Arnold의 비평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선 비평에서 판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다음, 그가 강조하는 비평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평, 즉 추상적인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비평이다.

여기서 Arnold가 말하는 비평이란 하나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비평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평의 첫 단계로 비평가가 개인적인 개입과 편견을 버리고 “인도인의 특징인 초연성”(the Indian virtue of detachment) (CPW, 3:274)을 갖는다는 점이다. Spinoza는 “심오하게 공평한 위인”(a mind profoundly impartial) (CPW, 3:176)이며, Joubert가 “정신의 완벽한 독립성”(perfect independence of mind) (CPW, 3:187)을 지닌 비평가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비평 정신이란 “공평성”(impartiality) (CPW, 3:214)을 의미한다.

공평성, 즉 “공평무사”(disinterestedness)는 비평가의 중요한 자질로 Arnold가 강조하는 것으로 초기 평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리스인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공평무사한 객관성”(disinterested objectivity) (CPW, 1:1)이며 Homer를 번역하려면 “공평무사한 마음”(disinterested love) (CPW, 1:215)을 지녀야 하고 Celt족과 그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공평 무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비평”(a disinterested, positive and constructive criticism) (CPW, 3:328)이 필요하다고 Arnold는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초연성과 공평성을 강조할 때 사용된 용어가 “공평무사”이다. 공평무사는 비평가가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관계없이 비평의 대상에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Arnold는 이 공평무사의

시금적으로 Burke¹¹⁾를 내세웠다. 공평무사라는 말 속에는 빅토리아인들이 그들의 지적 편협성을 타파하고, 정치, 사회 문제에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평 정신을 고취하고 시야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Arnold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비평의 그 다음 과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미 Homer에 관한 평론에서 Arnold는 비평의 목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CPW, 1:140)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의 처음 부분에서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그 대상의 고유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평가는 자신을 눈에 띠도록 하여 비평에 편협성(provinciality)의 기미를 내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CPW, 3:252) 부분이 아니라 대상의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전체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상의 전후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그외의 다른 대상들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Arnold는 편협한 마음은 그릇된 마음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표현할 때 복수로 취급하여 분명히 전체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평가는 대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미 그는 시인은 지적 구원, 다시 말하면 시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똑같이 문학 비평가라면 마땅히 현대와 고전 문학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문학사에 관한 지식으로 “한 시대의 문학 가운데의 중요한 주요 흐름을 인식하고 이 흐름을 중요하지 않은 흐름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To ascertain the master current in the literature of an epoch and to distinguish this from all minor currents is one of the critic's highest functions …) (CPW, 3:107)라고 했다. 이 점이 바로 Arnold가 중시하는 비평가의 기능 중의 하나. “현대 정신”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양한 현대 사회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지적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비평가는 “낡은 사고 방식이나 사회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자료에서 중요한 사상을 추출해내려는 마음”(Buckley 54)인 현대 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현대 사회에서 시인과 비평가는 현대 정신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승된 제도는 더이상 현대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비평가는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서 대상을 보아야 하는데 문학 비평가라면 모국의 문학외에 타국의 문학도 알아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비평가는 어느 정도 선택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또한 비평가는 Coleridge와 Joubert처럼 주로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

11) Arnold는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living by ideas)의 표본으로 Burke를 지적하고 사상의 삶을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 비평, 공평무사한 호기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최상이라는 완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Dan Ritchie,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Edmund Burke to Matthew Arnold” *Victorian Newsletter* (75) (Spring 1989), pp. 28~35.

(free play of mind)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대상을 잘 볼 수 있는 비평가라면 눈앞의 대상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은 비평이 취해야 하는 의문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즉 “최상”의 비평에는 융통성, “부드러운 사리 분별”(sweet reasonableness) 등이 필요한 것인데 비평이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한 주장은 당시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 Arnold가 얼마나 정신적, 지적 권위를 소망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자유로운 정신 활동을 지나치게 펼친 Oscar Wilde와 Geoffrey H. Hartman, Roland Barthes 등의 비평을 예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iede 23).

이처럼 비평의 대상은 전후 상황 속에서 전체로 보아져야 하는 것인데, Arnold는 이 의문의 비평 태도를 공평무사에 연결시켜 비평은 “비평이 다루게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한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고유의 법칙”(the law of its own nature, which is to be a free play of mind on all subjects which it touches)(CPW, 3:270)을 따르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비평을 “세상에 알려지고 말해진 최상의 것을 배우고 전파시키는 공평무사한 노력”(a disinterested endeavour to learn and propagate the best that is known and thought in the world)(CPW, 3:283)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Arnold가 생각하는 비평의 과정 가운데서 두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평가는 소극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비평가가 공평무사해야 하고 대상을 판단하는 일이 비평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때 대상에 관한 연구는 판단에 대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rnold 비평의 과정 가운데서 세번째 단계는 판단의 중요성이다.

문학 비평이 훌륭한 작품을 선별해내는 것일진대 Arnold도 문학 작품을 판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Eugenin de Guerin, Keats 등을 분석하면서 실용적인 지혜가 결여되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진다고 논평했다. 또한 그는 우울증에 빠지는 시인들의 기질을 도덕적 활동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보면서, 비평가도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는 1864년 6월에 프랑스 한림원(French Academy)을 논하는 평론에서 높은 도덕적 수준이 결여되면 편협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편협성이란 우울증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하고 사상의 가치를 과장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따라서 판단력은 비평가들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평의 대상에 관한 Arnold의 관심은 대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대상의 진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평의 기법은 늘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성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the great art of criticism is to get oneself out of the way and to let humanity decide.)(CPW, 3:227) “Pagan and Medieval Religious Sentiment”이기도 하다. 보다 나은 인간성을 향하는 일이란 Arnold가 항상 강조하는 문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Arnold의 비평의 관심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정신적, 문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있었으며 그의 비평은 교육적 효과를 띠면서 사회 비평으로 발전하게 된다.¹²⁾

12) 도덕적, 사회적 기능을 증시한 Arnold의 비평에 대하여 Rene Wellek도 “Arnold는 문학이 교육한다는 사실, 즉 문학이 인간을 제발하고 대상을 보게 하여, 그 자신을 알게 함으로써 평은을

사실 Arnold는 Roebuck의 저속성을 밝혀 낼 수도 있었으나, 그 대신 Roebuck의 연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Arnold는 Wragg라는 미혼모가 살고 있는 하나의 사실로써, 즉 경험론적 방법으로 빅토리아 사회의 진면목을 바로 볼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비평의 대상은 전체 맥락에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비평가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배심원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단호하고 결정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또다른 극단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평가가 내리는 판단은 더욱 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비평가는 이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되어진 최상의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므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선한 모든 것을 환영하는 태도" (to welcome everything that is good) (CPW, 1:199)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평가는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다른 비평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비평가라면 Miss Francis Cobbe가 Bishop Colenso의 책을 중요한 것으로, 즉 "대단한 능력, 힘 그리고 솜씨" (great ability, power and skill) (CPW, 3:278)로 이해하지만, 유럽의 지식인들에게는 이 책이 웃음거리에 (CPW, 3:40)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The English critic of literature, therefore, must dwell much on foreign thought and with particular heed on any part of it, which, while significant and fruitful in itself, is for any reason specially likely to escape him. (CPW, 3:282-83)

위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평가는 영국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유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비평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어떤 판단을 내린 후, 새로운 지식과 여론으로 다듬어진 자신의 생각을 교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실제 글로 표현되는 비평이며 판단이라는 비평의 과정의 그 다음 단계가 된다. 그래서 "비평은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된 최선의 것을 배우려 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는 공평무사한 노력" (CPW, 3:283) 이라고 Arnold는 정의했다.

물론 여기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은 시인이 필요로 하는 비평적 노력이기도 하지만 당시 어려운 사회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Arnold는 "지금까지의 비평은 지적인 면에서 그 성과가 미약하다." (...criticism has so little in the pure intellectual sphere...) (CPW 3:271) 라고 지적하면서 지적 편협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비평"을 권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적 편협성 (intellectual provinciality)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현대 문명의 흐름에 가까이 하고 문학 비평가는 외국의 사상도 검토하고 해석해야 하며 특히 지성을 중심으로 한 정신 문화가 창달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rnold의 이런 비평정신은 특별히 미래를 위해 겨냥한 것이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Rene Wellek, *A History of Modern Criticism 1750~1950: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P, 1965), p. 156.

그러나 E. K. Brown은 비평의 처음 두가지 단계를 혼동하고 서로 자리바꿈을 하여 설명하고 있다¹³⁾. 즉 Brown은 비평가가 공평무사하기 위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그 결과로 공평무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Brown의 경우와 같은 혼동은 흔히 있는 일이며 Arnold 또한 비평가에게 공평무사하기를 촉구하면서 실제로 그 자신은 공평무사하지 않았다고 반박당하기도 하지만, Collini가 지적하듯이, 전반적으로 Arnold의 비평은 과당적 성격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시공을 초월하여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Collini 57).

한편 최상에 관한 여론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여론 속에서 최상을 결정하는 일이 과당을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은 빅토리아인들의 생각이 정당의 노선에 따라 양극화되면서 엄격히 구분되어지는 정당 정치의 부상을 공격하는 글이기도 하다. Arnold는 이미 공평무사를 부정적인 의미로 암시하면서 의식적인 편견을 멀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Arnold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자유로우면서도 융통성있고 독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의 상황이 이론과는 무척 다르고 최상이라는 확실한 판단 또한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평무사한다는 것은 보다 좋은 것을 위한 비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평무사한 다음 대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비평가의 태도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된 바의 최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비평가가 실질적인 일에 개입한다면 과연 공평무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비평가는 개입하지 않고서만 최대로 공평무사할 수 있다고 Arnold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비평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초연하고 실제 삶의 영역을 멀리하고 체념하는 인도인의 장점" (the Indian virtue of detachment and abandoning the sphere of practical life)을 들 수 있다. Arnold는 이미 16년전 Clough와의 편지에서 *Bhagavad Gita*를 논하면서 "인도인은 명상 또는 몰두와 지식을 구분하며 그리고 실행을 체념하는 것과 행위의 결과, 즉 온갖 경의까지 체념하는 것을 구별한다. 마지막 것은 놀라운 방법이다." (The Indians distinguish between meditation or absorption-and knowledge : and between abandoning practice and abandoning the fruits of action and all respect thereto. This last is a supreme step……)¹⁴⁾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초연한 인도인의 특성을 추천하면서도 활동과 그에 따르는 모든 명예까지 체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을 멀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사실 *Essays in Criticism* (1865)을 살펴보면 Arnold가 다룬 인물들은 영국인들이 아니다. 여기에

13) Brown이 평가한 비평 방법은 다음과 같다: "In acquiring or developing a disinterested disposition one must learn, in one of Arnold's famous phrases, to see life steadily and see it whole or, in another, to see things as they really are." 참고: E. K. Brown, *Matthew Arnold: A Study in Conflic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8), p.90.

14) Matthew Arnold, *The Letters of Matthew Arnold to Clough*, H.F. Lowry ed. (Oxford: Clarendon Press, 1932), p.71.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Letters to Clough*, p.-)순으로 텍스트내에 표시함.

확대 적용되어(Buckler 60)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비평가는 독자를 최고의 선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 사심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Trilling이 지적했듯이, Arnold의 비평의 기능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어 비평이 사회, 종교의 측면으로 발전되어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Trilling 24).

그러므로 비평가는 현재의 사상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무사한 마음과 지적 호기심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알려지고 생각된 최상의 것을 배우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최상의 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완전인(total being)이 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Arnold의 비평의 특성을 Sidney Coulling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It pointed toward the future rather than toward the past - not toward a dead controversy, but toward the idea of man's perfection that he (Arnold) would explore more fully as the concept of criticism evolved into the concept of culture. (b 54)

위 인용에서 보듯이, Arnold의 비평은 미래 지향적, 총체적이며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평은 인간의 완전을 목표로 하는 문화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듯이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기초하여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Arnold의 비평은 어떤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분명한 정신 태도로, 즉 하나의 노력, 시도 그리고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Coulling b 53). 따라서 Arnold의 비평은 불변의 절대적인 유용성이라는 "보편적 이성"(general reason)을 만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Arnold의 비평의 개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성은 비평이 가치있고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과 사회가 비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는 비평이 손짓하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을 끝을 맺고 있다. 현대인은 최소한 말해지고 생각된 바의 최상의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비평가는 최상의 것을 발견하여 혼돈을 막아 주는 지주, 즉 무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지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Arnold의 비평은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사회의 질병을 진단하여 치유를 제공하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Arnold의 비평 사상은 현대인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물론 최상의 것을 결정해 내는데 있어서 비평적 정신만이 Arnold의 만족스런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아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에서 이런 Arnold의 비평 태도를 반박하는 지성인들도 있었지만,¹⁶⁾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계속 최상의 것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은 한결같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 특히 비평가에게서 그 기준을 찾았다(Farrell 110).

16) 참고 : Fitzjames Stephen in the 'Saturday review, December 1864, in *Matthew Arnold The Critical Heritage*, Dawson & Pfordresher e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9), pp. 117~26.

또한 Arnold는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므로 “현대 정신”, “시대에 대한 적절한 해석”, “주요 흐름” 등으로 비평 정신을 역설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비평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서도 반추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Jonathan Arac이 지적했듯이, 비평가는 추방된 국외자라기보다는 선택받은 사람이며 문화의 대표 사도가 되듯이 선택받은 선지자의 임무를 부여 받아 비평에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Arac 144).

비평의 기능은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는 현대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조화와 균형의 원리만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비평의 목적만은 역사에 따라 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rnold는 비평적 담론의 세계에서 비평의 근본을 인식한 비평가였기 때문에 오늘날 비평의 세계에서 쉽게 추방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Farrell에 의하면, Arnold는 스스로 비평가의 탈신비화라는 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Farrell 4). 더욱이 Arnold는 시와 비평의 세계,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항상 우리 곁을 빠져 나가버려 망각하기 쉬운 점을 경험하게 해주는 비평가이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의 Arnold의 기능은, Riede가 지적했듯이, Arnold가 최초로 직면했던 문제들의 긴박성과 그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면서 계속 비평적 논쟁의 중심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Riede 25).

References

- Arnold, Matthew.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S. H. Super e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Chicago, 1965.
- . *Letters of Matthew Arnold 1848~1888*. George W. E. Russell ed. London: Macmillan, 1895.
- . *The Letters of Matthew Arnold to Arthur Clough*. Oxford: Clarendon Press, 1932.
- Alexander, Edward. *Matthew Arnold, John Ruskin, and the Modern Temper*.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3.
- Arac, Jonathan. “The Arnoldian Prophecy: Making Critical History.” *Boundary 2*, 12(3) 13 (1) (Spring/Fall, 1984), pp. 143~55
- Baldick, Chris. *The Social Mission of English Criticism 1848~1932*.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Brown, E. K. *Matthew Arnold: A Study in Conflic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8.
- Buckler, William. *Matthew Arnold's Prose*. New York: AMS Press, 1983.
- Buckley, Vincent. *Poetry and Morality*. London: Chatto & Windus, 1959.
- Collini, Stefan. *Arno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Coulling, Sidney. (a) *Matthew Arnold and His Critics*. Athens : Ohio University Press, 1974.
- . (b) "The Background of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Philological Quarterly*, 42(January 1963), pp.36~54.
- Dale, Peter Allan. *The Victorian Critic and the Idea of History: Carlyle, Arnold, Pater*.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Donovan, Robert A. "The Method of Arnold's *Essays in Criticism*." *PMLA*, 1956. pp.922~31.
- Farrell, John P. "Introduction : Matthew Arnold : The Writer as Touchstone." *Victorian Poetry*, 26(1-2) (Spring-Summer, 1988), pp.1~10.
- Goodheart, Eugene. "English Social Criticism and The Spirit of Refor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iterature History and the Philosophy*, 5(1) (Fall 1975), pp.73~95.
- Neiman, Fraser. *Matthew Arnold*. New York : Twayne, 1968.
- Richards, I. A.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 RKP, 1976.
- Riede, David. "The Function of Arnold's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Arnoldian*, 15(1) (Winter 1987/1988), pp.17~25.
- Robertson, P. J. M. "Criticism and Creativity I : An Introduction." *Queen's Quarterly*, 91(1) (Spring, 1984), pp.66~72.
- Schneider, Mary. W. *Poetry in the Age of Democracy*.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9.
- Triling, Lionel. "Introductio" in *The Portable Matthew Arnold*. Middlesex : Penguin, 1980, pp.1~29.
- Watson, George. *The Literary Critics*. Baltimore : Penguin Books, 1962.
- Willey, Basil. *Nineteenth Century Studies Coleridge to Matthew Arnold*. New York : Happer Torchbooks, 1949, pp.251~84.

Summary

A Study of Matthew Arnold's Criticism
—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Sun-Hee Kim

This paper attempts to unravel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criticism through the analysis of Matthew Arnold's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 Chapter one introduces the paper and an outline of Arnold's thoughts as a critic.

Chapter two and three analyze the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Arnold's criticism. He argued for the importance of criticism, the "critical spirit", which he made the chief characteristic of a modern age. It is suggested that his insistence on the function of criticism is meant for the coming age of the people. He proposed the power of criticism as an activity performed as an activity worthwhile in itself. He tried to show the activity of criticism - in its broadest sense the examination of ideas and of life itself - is a productive work.

Chapter four deals with the process of criticism which Arnold proposed. He asserted that a critic has the responsibility to interpret the main movement of mind and make the best ideas prevail in the world. Showing the criticism not as an abstract lawgiver but as a sort of companion and clue, he emphasized the activity of criticism on disinterestedness and the free play of mind.

This paper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Arnold's importance to the literary criticism. In an age of religious uncertainty, he offered criticism as a source of the total perfection of humanity. His insistence on "the best that is known and thought in the world" has been a stay against artistic, intellectual and moral anarchy in his time. Like Arnold, we must try to learn and remember what the common reader wants and needs from criticism, and should not forget that the critic's object is not an abstract and utopian knowledge but "the best that is known and thought in the world".